|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 정보** | | | | | | | | | | | | | | |
| 성명 | 정성우 | | | | | 학번 | | | 2015313791 | | | | | |
| 소속단과대학 | 경영대학 | | | | | 소속학과 | | | 경영학과 | | | | | |
| 파견구분  (해당 칸에 O표) | 교환학생 | | | 0 | | 파견국가 | | | 네덜란드 | | | | | |
| 해외수학생 | | |  | |
| 파견대학이름  (영어로기재) | Tilburg University | | | | | | | | | | | | | |
| 파견기간 |  |  | 2019학년도 | |  | | 2학기 | ~ | |  | 2019학년도 |  | 2학기 |  |

|  |  |  |  |
| --- | --- | --- | --- |
| **수학 정보 1: 출국 전** | | | |
| 출국일 | 2019년 8월 12일 | 학기 시작일 | 2019년 8월 26일 |
| 비자 종류 | 거주허가증 | 비자 발급 소요 기간 | 장기간 |
| 비자 신청 절차 | 모두 메일과 서면으로 스캔해서 보내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3개월 이상 체류자만 필요한 거주허가증이기 때문에 앞에 절차만 미리 해두고, Tilburg가서 학교에서 또 추가 절차를 하고 거주허가증이 발급됩니다. | | |
| 항공권 정보 | Tilburg University가 아마 파견 학교 중에 가장 발표가 늦게 났고 따라서 항공권도 조금 늦은 5월에 구입했습니다. British Airways 런던 경유로 110만 원 정도 냈습니다. | | |
| 출국 전 준비 사항 | 한국에서 부치는 짐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준비할 것으로는 저는 웬만한 것들은 가서 사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불도 가서 샀고 음식도 하나도 안 들고 갔고요, 옷, 세면도구, 생활에 필요한 전자제품만(노트북, 블루투스 스피커 정도) 들고 갔던 것 같아요.  요리는 조금 배워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번 사먹기엔 피자 말고는 다 비싸고요, 요리를 해야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 |
| 기숙사 신청 | Verb라고 부르는 교환학생용 기숙사 동만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곳인데요, 한국에서 수강신청 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딱 맞춰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실패했어요 | | |
| 수강 신청 | 우선 application form을 작성할 때 원하는 수업을 최대 5개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신청한 것들은 웬만하면 추가적인 절차없이 수강신청 기간이 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때는 시간이 어떻게 배정될지 모릅니다. 아마 시간표가 겹치는 과목들이 생겨 다른 수업들을 수강하게 될 것에요. 그 때 과목 설명에 conditions of admission apply라고 명시된 과목들은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락이 되면 Osiris.uvt.nl에서 수강신청하면 되고 그 외는 바로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업에 관한 정보는 학교 계정이 만들어지고 난 후 Osiris.uvt.nl 에 들어가서 수강 계획서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파견학생에 가장 중요한 수업의 시수라던가 시간표는 정해져있지 않아요. 시간표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매주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수업이 있지 않아요. 애초에 약간 랜덤하게 시간이 배정되어 있는데 게다가 또 바뀌기까지 합니다. 본의 아니게 결석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고요, 계속 확인해줘야해요. 물론 tutorial 시간이 아니라면 보통 출결은 성적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시간표를 짜는데 있어 굉장히 힘든 점이었습니다. | | |
| 웹사이트 | 미래에셋 장학생 네이버카페, 우리학교 교환학생 게시판수학보고서, 다른 학교 교환학생 게시판 | | |
| 기타 유의 사항 | 다른 도시, 다른 학교에 비해 방을 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미리 잘 구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학 정보 2: 현지 도착 후** | | | | | | | |
| 공항에서 캠퍼스까지 이동 방법 | 기차 | | 공항에서 캠퍼스까지 걸리는 시간 | | 1.5~2시간 | | |
| **수강 과목** | | | | | | | |
| 학기 | 학수번호 | 분반 | 과목/프로그램 이름 | | | | 평가  (1~10점) |
| 2019학년도 2학기 | 441074-B-6 |  | Organization Theory | | | | 6.5/10 |
|  | 106278-B-6 |  | Dutch I for Asian Students | | | | 8.5 |
|  | 325048-B-6 |  | International Comparative Management | | | | 7.0 |
|  | 325094-B-6 |  | Comparative & Cross-Cultural Mgt for IBA | | | | 7.0 |
|  | 328051-B-6 |  | Marketing @ Work | | | | 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업 관련** | | | | | | | |
| 수업진행방식 | <Organization Theory>는 organization에 관한 Theory들을 공부하는 수업이었습니다. 한 학기를 두개의 block으로 나누어 두번째 block에만 수업이 진행되는 과목이었는데요, 그만큼 수업이 많고 밀도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우선 매주 논문 짧게는 30 길게는 100 페이지 가량 reading material로 주어지고요, 그 논문들에 관해 공부합니다. 교재와 PPT로 수업을 진행하는 한국 대학들과 달라서 매우 힘들었지만 보람 찬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Dutch I for Asian Students>는 기초 네덜란드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Dutch I for international Students 과목도 있지만 이 과목에는 비슷한 언어를 쓰거나 할 줄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진도도 더 빠릅니다. 처음에는 왜 아시아 학생들만 모아놨지?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Language Center에서 열리는 수업인데 아마 그 쪽 수업들이 출석만 잘 한다면 Pass 받기도 수월하고 재미도 있어요. 주 1회수업이고 매주 과제가 있지만 언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네덜란드에 있는 동안 네덜란드어 배워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레스토랑 메뉴판, Dutch로 적힌 안내사항 읽을 때 등등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업도 너무 지루하지 않고 서로 대화 연습하는 것도 많고 재밌어요, 친구랑 같이 신청하면 더 재밌을 거에요.  International Comparative Management는 국제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학교 국제경영 수업을 들어보진 못 했지만, 네덜란드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나라별 특징들, 그리고 그 연구 방법론 등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Comparative & Cross-Cultural Mgt for IBA는 위의 수업과 비슷한데 IBA Course를 듣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수업이에요. 우리학교로 치면 글로벌경영 전용 수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수업 내용은 비슷하지만 이 수업은 Tutorial이 포함되어 있어요. Tutorial은 출석이 필수입니다.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결석 시 Fail되는 수업입니다. 학생들과 같이 자유롭게 Role Playing도 하며 간접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 재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Marketing @ Work는 실제 회사와 연계하여 특정 주제를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매주 발표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위 과목들보다 다소 실무적인 수업이었는데요, 교환학생들이 수강생의 70프로 정도를 차지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근처 Eindhoven에 본사를 둔 Philips가 파트너였고, 주제는 Male Shaving과 Online Store 두가지였습니다. 저는 Shaving 토픽을 골랐고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지가 주제였습니다. SPSS도 다루어야 하고 매주 발표자를 랜덤으로 선정합니다. 덕분에 SPSS도 어떻게 다루는지 짧게나마 배워볼 수 있었고 영어 발표도 많이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 | | | | | |
| 평가방식 | Organization Theory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몇 문장)과 에세이형 주관식 문제로 이루어진 시험으로 성적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양이 굉장히 많고 논문이다 보니 글이 난해합니다. Fail 받는 학생이 굉장히 많은 수업이라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았던 수업이었습니다.  Dutch I for Asian Students  파트너와 주어진 상황에 맞게 대화하는 Oral Exam과 Written Exam 두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주 과제가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International Comparative Management  객관식 시험과 짧은 주관식 문제로 이루어진 시험을 칩니다. 읽어야 할 양은 교수님이 직접 정리한 Syllabus와 두 논문이고 양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 수업 때 다룬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Comparative & Cross-cultural Mgt for IBA  객관식 시험, 짧은 주관식 문제로 이루어진 시험을 칩니다. 그 외 Tutorial 또한 매번 참여점수를 매깁니다. 역시 몇 개의 논문들을 읽어야 시험을 칠 수 있고, 수업중에는 그 논문들을 다룹니다.  Marketing @ Work  시험은 없고 매주 하는 발표는 성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종 발표와 최종 보고서만이 성적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조별활동으로 한 학기가 이루어진 시험이고, 공모전과 비슷한 느낌의 수업이었습니다. 발표는 수강생 전원 한 번 이상 하게 되는 수업이고 주제 선정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부터, 통계 자료 분석, 프레젠테이션 모두 성적에 영향을 끼칩니다 | | | | | | |
| 웹사이트 | Osiris.uvt.nl | | | | | | |
| 기타 유의 사항 | 교수님과의 관계는 우리 학교랑 크게 다른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로 쉽게 E-mail로 소통할 수 있고, 궁금한 점 있으면 office hour때 찾아가 여쭈어보면 됩니다. 공부 환경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논문을 토대로 대부분의 수업이 진행되다보니 이해도 잘 가지 않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는 분명 복잡한 식 같은 것은 없고 주로 개념 위주의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 것을 직접 써야하는 시험이 많았습니다. 공부량은 어떤 수업을 듣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Organization Theory가 같이 들은 친구들도 많이 Fail을 한 과목으로 Pass/Fail임에도 압박감을 많이 받은 수업이었습니다. 그 외의 수업들은 수업을 듣고 이해를 했다면 시험기간에 열심히 공부하면 무난히 Pass할 수 있는 과목들이었습니다. | | | | | | |
| **기숙사 / 숙소** | | | | | | | |
| 기숙사/숙소 이름 | Statenlaan | | | 숙소위치(교내/외) | | 교외(자전거 5분 거리) | |
| 비용/1학기 | 335Euro/달 | | | 평가(좋음/보통/나쁨) | | 나쁨 | |
| 웹사이트 | Kamerbemiddelingtilburg.nl | | | | | | |
| 기타 유의 사항 | 개인적으로 Verb라 부르는 교환학생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매주 파티가 열리는 등 짜증난다는 말도 많이 들었지만 대체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시설도 나쁘지 않습니다. Verb 신청기간이 지나면 아마 개강까지 몇 달 남지 않았을 텐데요, 그 때는 이미 방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좋은 방들은(400-550유로정도 하는 것 같고요) verb 신청기간보다 빨리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낸 방의 경우 시설은 정말 있어야 할 것들만 있는 방이었습니다. 아마 위 사이트에서 구하는 방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이트보다 더 저렴하지만 시설이 좋진 않습니다. 시설 관리도 썩 잘되진 않습니다. 교체해 주어야 할 시설들이 빨리 교체되지 않았고 그 점에선 연락을 해도 답변이 늦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추천하진 않습니다. | | | | | | |
| **문화 및 여가 활동** | | | | | | | |
| 동아리는 많지만 교환학생이 한 학기만 할 만한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Top Week라는 OT를 진행하는 IESN은 대부분 가입을 권유받으실 텐데요, 비싼 등록비(40-50유로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나요)에 보통 속는 느낌이 들어 많이들 꺼려하지만, 저는 가입했습니다. 가입하면 매주 교환학생 파티가 열리는 Bar를 이용할 수도 있고,(썩 많이 가지는 않았지만) IESN에서 주관하는 여행들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개만 갔었는데 수련회 느낌이 나서 재밌었어요. 물론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불편한 점은 많습니다. 운영도 미숙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밥도 입에 잘 맞지 않더군요. 하지만 친한 친구들이 가는 여행에 같이 가면 분명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행은 Tilburg에서 약 1시간 30분 가량 떨어진 Eindhoven 공항을 이용하시면 유럽 대부분의 여행지를 저가항공을 이용해서 다녀올 수 있을겁니다. 걸리는 시간은 교통편이 좀 불편해서 Schiphol까지 가는 시간과 거의 같지만 스키폴 공항까지 가는 것보다 훨씬 싸고요, 공항도 매우 작아 대기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2시간 전까지 도착한다면 아마 한시간 이상 비행기를 기다리게 되실 거에요. 한시간 전에 도착하며 부랴부랴 짐 부치고 비행기까지 갔더니 40분 이상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용할수록 Eindhoven 공항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 | | | | | |
| **파견 대학의 지원** | | | | | | | |
| 담당자 성명 | Ms. Maud Willems | | | 담당자 Email | | [studyabroad@tilburguniversity.edu](mailto:studyabroad@tilburguniversity.edu) | |
| 담당자 직함 |  | | | 상담실시 여부(예/아니오) | | 예 | |
| 기타 지원 사항 | 메일로 쉽게 연락할 수 있고, 궁금한 점들 또한 잘 가르쳐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수학 정보 3: 입국 전** | | | |
| 입국일 | 2월 1일 | 학기 종료일 | 마지막 시험은 12월 14일 정도였는데 수업마다 다르고, 재시험의 경우 1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
| 항공권 정보 | 갈 때 왕복으로 사둔 티켓 그대로 타고 왔습니다. | | |
| 입국 전 준비 사항 | 네덜란드에서 짐 부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Jumbo에서도 대부분 보낼 수 있고 Primera라는 문구점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구글맵스에 Post nl이라고 치면 나오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 |
| 기숙사 퇴사 | 청소, 검사, 열쇠 반납 | | |
| 파견 종료 절차 | 딱히 없습니다. | | |
| 웹사이트 |  | | |
| 기타 유의 사항 | 딱히 없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만족도  (해당 칸에 O표기)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
| 0 |  |  |  |  |
| 소감/총평 | 사실 끝나갈 때는 유럽이 질리기도 해서 한국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인생의 전환점이다, 꿈 같은 시간이다, 너무 좋았다 돌아가고 싶다는 소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좋은 시간이었지만 마냥 편하고 재밌는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힘든 날도 있고, 문화 차이도 항상 존재합니다. 여행도 많이 다니다 보니 감흥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가만히 집에 있는 날도 있었고 시험기간도 아닌데 공부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마음이 맞는 친구도 만나고, 영어로 하는 대화, 공부 모두 익숙해지고, 언젠가부터는 처음 가는 유럽 도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지내면 당연히 겪게 될 변화들인데 제가 가기전에 얻고자 했던 것들 것 대충 다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스러운 학기를 보내고 온 것 같고, 벌써 한국이 질리기 시작해 이제는 저도 그날들이 꿈만 같습니다. | | | | |
| 제안사항(개선점) | 15시간 당 1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많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Tilburg University에서 30학점을 꽉 채워 들었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예정조서에 따르면 11학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수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과마다 다르지만 15시간 기준 1학점으로 한다는 점이 몇 시수짜리 수업인지 모른 채로 시간표를 짜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불편함이었습니다. | | | | |
| 사진 |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진을 넣어주세요.)  \* 원본 사진의 크기가 큰 경우(1M이상) 리 사이즈(RESIZE)후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 | | |